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SUMMER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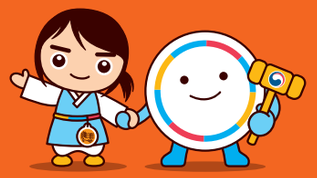
제도의 틈을 메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틈을
메워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vol.73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독자의 소리

지난 2022년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강예숙(인천광역시 연수구)

ACRC News 국가청렴도 2017년 51위에서 2021년 32위로 상승한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상승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우윤정(경상남도 산청군)

권익TOON 행정심판은 단어부터 어렵고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만화로 권익구제 사례가 소개되어 이해하기가 쉬웠고 행정심판 제도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김명진(충청북도 제천시)

청렴콘텐츠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수박이 너무 달아서'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용기야말로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청렴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5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지난호 정답 이해충돌 방지법

퀴즈 정답자

이금창(전라북도 전주시)
최정윤(대구광역시 수성구)
김동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근형(경기도 용인시)
전영조(전라북도 군산시)
최성열(충청북도 청주시)
박호언(충청남도 보령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ACRC NEWSLETTER

VOL.73

국민을 위한

04 **권익 포커스 ①**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 개통
06 **권익 포커스 ②**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
08 **제도의 틈,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14 **권익 미리보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18 **권익 빅데이터** 2022년 6월 민원동향
24 **ACRC 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이 만드는

27 **권익 새로고침**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32 **권익을 빛는 사람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6 **국민생각함**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
38 **권익 TOON** 군 공무수행 중,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40 **청렴 콘텐츠** 청렴과 결백의 전이

국민과 함께 읽는

44 **권익 나들이** 항구 도시 동해로 떠나는 아날로그 여행
50 **권익 비전** 국민권익 다함께 누리쇼 4
52 **권익 스크린**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드라마
54 **트렌드 이슈** 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좋아!
56 **생활 더하기** 여름 DOWN 절약 생활
58 **권익 갈무리** 다시 읽는 국민권익

발행일 2022년 7월 29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이 해결될 지도

대한민국 민원지도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 개통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민원은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완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 불편과 사회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민원지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국민권익위원회과 국회사무처는 지난 3월,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긴밀히 협업해왔다.
그 결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통해 국회사무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입안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대한민국 민원지도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와 국회사무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동시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민원지도는 작년 한해 약 1,500만 건의 민원을 분석해 지역별(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로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를 '빅데이터 기반 민원지도'로 시각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빅데이터로,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을 만들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과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와 또 전국 각 지자체에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민원 빅데이터 연계 등 협업사업을 추진해 국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분석 결과, 작년 한 해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 키워드는 '아파트'였다. 재건축이나 주택청약과 분양,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큰 관심이 확인됐다.

1	아파트	#재건축, #입주예정자, #분양
2	교통	#광역교통대책, #GTX, #교통 인프라
3	교육	#학교설립, #교육환경, #확교배정
4	버스	#광역버스, #버스노선, #버스배차
5	신도시	#위례, #검단, #다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상위 민원 키워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된 키워드는 '교통'이었다. 목동선 조기 착공, GTX, 신분당선 등에 대한 관심이 확인됐다.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년들의 첫걸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청년들의 청렴 역량 함양을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과정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지난 4월 모집을 시작한 교육은 5월 4일부터 총 8회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차후 대한민국을 주도해 갈 청년들이 청렴에 더욱 가까워진 두 달을 조명해본다.

입교식, 청렴과의 첫 만남

5월 4일 저녁, 서울 시민청에서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입교식이 개최됐다. 머지않아 청렴 인재로 나아갈 청년 90여 명이 참여한 입교식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축하 인사, 교육생들의 자기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랩·웹툰·노래 등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관람 등으로 꾸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교육생들의 입교를 축하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인재의 핵심 가치인 청렴 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하나, 청렴을 체득하다

8회 과정 동안 청년들은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부패발생의 구조·문화 및 우리나라 청렴 정책, UN 반부패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규범과 각국의 대응 방식,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등 다양한 교육을 들었다. 강사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엘리스 베르그룬 OECD 정책분석관 등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또한, 역사전문가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청렴 인문학 특강, '젠가' 저자인 정진영 작가의 청렴 북토크, 부패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딜레마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 실습, 청렴 체험을 위한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에 대한 민감성과 판단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수료식, 완성된 청렴의 가치

완성도 있는 교육과정 끝에, 청년들은 청렴으로 한껏 충만해진 마음으로 수료식을 맞았다. 67명의 수료자가 배출됐으며 성적 우수자 3명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반부패 현안 발굴 및 공론화 등을 수행하는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명은 '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 선발돼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며,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을 수료한 28명에게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부여된다. 수료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널리 알리고, 행정의 감시자 및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개선 역할 및 추진절차

②
제도개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③
국민 불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제도개선 사례

제도의 틀, 국민의 삶을 바꾸다

제도의 □ 을 메우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직사회 부패와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정과 청렴을 갖춘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도 촘촘하고 빈틈없는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건네는 제도개선의 모든 것을 이곳에 소개한다.

01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개선은 국민의 고충민원이나 제안, 신고 등을 분석하여 고쳐야할 과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된 행정기관에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권고 후에는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제도개선 역할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과 예산낭비·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 개선

세부유형	내용
구조적 부패	예산낭비, 민관유착, 직권남용 등
불공정·특혜	채용·자격 등 기회 불공정(청년), 비대면 소비문화 등 신(新)제도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

빈발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주거·의료 등 민생안전 분야,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국민생활 밀착과제 발굴·개선

세부유형	내용
포용·안전망	예산낭비, 민관유착, 직권남용 등
청년 체감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별 개선
불공정·특혜	빈발·이슈민원 포착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코로나19 대응 등)

#이행실태 관리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이행저조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이행독려 수단을 활용해 권고과제 관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제47조(제도개선 권고), 제52조(이행실태 확인·점검)

제도개선 추진절차

과제선정 → 문제점 조사 → 개선방안 마련 → 의견수렴 → 제도개선 권고 → 이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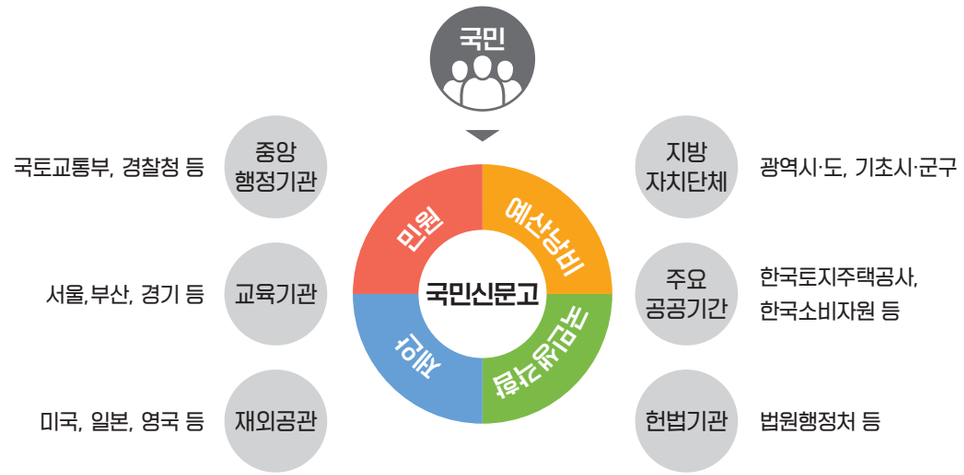
02 제도개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신문고



주요 서비스

민원
정부기관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국민제안
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국민생각함
생활 속 공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예산낭비
생활 속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발견 했을 때

Q&A
구체적인 적용사례나 민원 처리 사례가 궁금할 때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 나아간다.

국민생각함

생각 + 참여 = 정책수립·제도개선

이용 대상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 시민단체, 법인 등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사·공단
재능기부자 생각의 진행과 발전을 돕는 분야별 준전문가
전문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현실화 해 줄 든든한 조력자

참여 방법

1. PC, 모바일 등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생각함'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idea.epeople.go.kr을 직접 입력 후 방문
2. 국민생각함 회원가입 후 생각을 남기거나 다른 생각에 찬성·반대 등 의견 더하기

생각쓰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함, 바뀌어야 할 정책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투표, 설문, 댓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더해주세요!
결과보기 나의 참여한 생각과 정책으로 실현된 우리의 생각들을 확인하세요!

03 국민 불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추천과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사례(지난 5년 간) 100선을 선정하고, 이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그중 2선의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개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사례 1) 이동급식카드디자인 개선해 낙인효과 방지한다

권고일자 2021. 09. 06.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요

1.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각각 다른 운영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급식 사각지대 발생
2. 결식 우려 아동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가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에 어려움 발생

제도개선 방안

1.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2.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 확대, 지도서비스 제공,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방안**
   - 아동급식가맹점 온라인신청 등 등록절차 간소화 및 가맹점마크 개발·홍보

기대효과

1.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이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받도록 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2.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 아동급식 제공 음식점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아동급식지원 사업 강화

사례 2)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건 통일

권고일자 2021. 09. 09.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

개요

1.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모색
2. 전기·수소차 확산 정책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정기·수소차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고충·불편 유발

제도개선 방안

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요건 사각지대 해소**
   - 전기·수소차 보조금 신청자격의 거주요건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여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 전기·수소차는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과 같이 하이패스차로 뿐만 아니라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 감면
3.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 대상만 감면하는 국·공립대학 전면적으로 감면제도 운영

기대효과

1.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보완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불편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2022. 05. 16. ~ 08. 1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5대 중점분야(복지분야, 고용·노동분야, 산업분야, 농림·수산분야, 민간분야)
에서 발생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입니다.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본래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

펼쳐서 미리보기 →

접수된 신고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하나 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둘 고용·노동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셋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넷 농림·수산분야
(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다섯 민간분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2022. 05. 16. ~ 08. 1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5대 중점분야(복지분야, 고용·노동분야, 산업분야, 농림·수산분야, 민간분야)
에서 발생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입니다.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본래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유형

① 복지분야

- **(요양급여비용)** 직원 입·퇴사일 허위신고, 근무시간 허위 등록 등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사실은닉(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수령), 소득 변동사항 미보고 등
-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인건비 페이백 등

② 고용·노동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거짓 휴업신고, 인건비 페이백 등
- **(청년일자리사업)** 직원 허위등록 등
- **(실업급여)** 취업사실 은닉,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등

③ 산업분야

-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연구비 목적 외 이용 등

④ 농림·수산분야

- **(농업보조금)** 자격요건 허위 작성 등
- **(FTA폐업지원금)** 지원규정 위반 등

⑤ 민간분야

- **(비영리단체)** 인건비 페이백, 허위자료 제작 등
- **(협동조합)** 인건비 페이백, 제출서류 조작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 안내

①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③ 신고자 보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④ 신고 방법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①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②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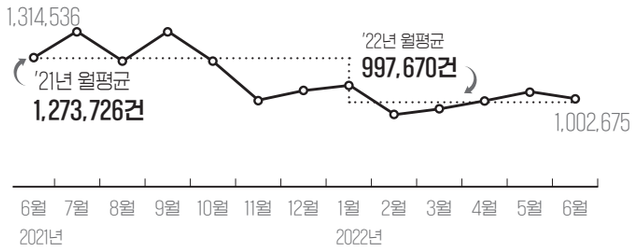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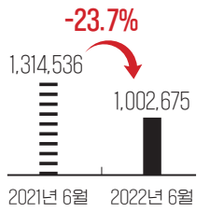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6월 민원동향'을 살피며, 국민이 바라는 내일을 그려본다.

■ 민원 추이

+ 2022년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02,675건**
+ **전월 (1,062,606건)** 대비 5.6% 감소,
+ **전년 동월 (1,314,526건)** 대비 23.7%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7.1. 8시)





■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2.0%)**, 성별로는 **남성(69.7%)**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3%), 30대 남성(18.0%), 50대 남성(13.4%)**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18,994건 대상

연령별	
20대 이하	12.0%
30대	25.3%
40대	32.0%
50대	18.5%
60대 이상	12.3%

성별	
남성	69.7%
여성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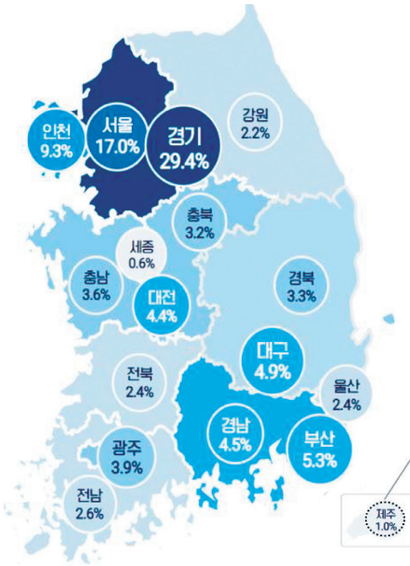
연령별·성별	
40대 남성	22.3%
30대 남성	18.0%
50대 남성	13.4%
40대 여성	9.7%
20대 남성 이하	8.7%

■ 지역별 현황

+ **경기 29.4%(256,185건), 서울 17.0%(148,563건), 인천 9.3%(80,963건), 부산 5.3%(46,508건), 대구 4.9%(42,922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5.7% 차지
+ **불법 주정차 신고 및 의약품 자판기 도입 반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 (9.0%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 (7,564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72,467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6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민원 키워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발생 현황

■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0.6%)가 가장 많고, 교통(15.3%), 도로(11.1%), 행정안전(4.9%), 주택건축(4.5%), 환경(3.5%), 산업통상(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 안전	주택 건축	환경	산업 통상	교육	보건
40.6%	15.3%	11.1%	4.9%	4.5%	3.5%	2.2%	2.1%	2.0%
수자원	**문화**	**도시**	**관광**	**방송 통신**	**노동**	**해양 수산**	**과학 기술**	**사법**
1.6%	1.5%	1.1%	1.0%	1.0%	0.9%	0.8%	0.8%	0.7%
국방	**농림 축산**	**체육**	**세무**	**재정**	**복지**	**법무**	**우정**	**외무 통일**
0.7%	0.6%	0.6%	0.6%	0.6%	0.5%	0.5%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02,675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교육	주택건축	해양수산	체육	보건
81.5% ▲	25.8% ▲	21.2% ▲	8.1% ▲	2.2% ▲

감소율 상위 분야

세무	도시	행정안전	외무통일	산업통상
20.1% ▼	13.3% ▼	12.5% ▼	11.2% ▼	10.3% ▼

■ 주요 민원키워드

+ 6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서울 접근성,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 서울 접근성, 신도시 주민, 광역교통사업, 환승센터 구축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및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충족을 위해 인근 부지의 '아파트 분양계획 확정 촉구' 관련
-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대통령 공약 사항 관련 GTX-D노선의 원안 유지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 공사 중단 중인 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 해결 요청, 남향 배치에서 일부 북향으로 변경된 사전청약 아파트에 대한 이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 관내 공원 명칭 선정 결과 재심사 요구 등 '아파트' 및 '지역 내 공공시설' 관련

Top 30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인천 지하철	21	어린이 보호구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	학교 설립	22	국방부 부지
3	아파트 분양	13	원거리 통학	23	인천공항 출발
4	서울 접근성	14	과밀 학급	24	김포 골드라인
5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5	분산 배치	25	BC값 하락
6	신도시 주민	16	신도시 학교	26	유치권 행사
7	광역교통사업	17	인구 밀집도	27	타워크레인 철거
8	정차역 환승센터	18	서울 종심	28	소각장 폐쇄
9	수도권 서북부지역	19	복합쇼핑몰 계획	29	영흥공원 네이밍
10	차세대 신개념 환승센터 구축	20	원당지구 인구	30	남향 배치

6월 월간 민원 분석,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싶다면?

7월의 관심키워드 : 횡단보도 일시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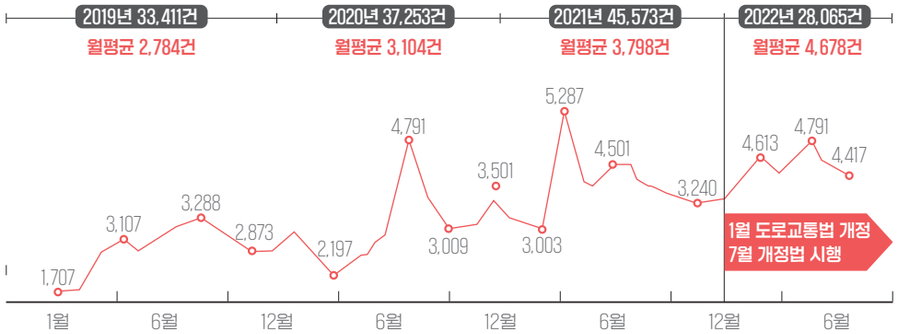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1 민원 추이

최근 3년 6개월간('19.1월~'22.6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총 144,302건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월평균 민원건수는 '19년 대비 68.0% 대폭 증가

※ 최근 5년간('17~'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는 보행자(출처 : 경찰청)



2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73.4%) 이 여성(26.6%) 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9.6%), 40대(34.0%), 50대(11.0%), 20대(10.3%), 60대(3.8%)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44,948건(전체의 31.1%), 연령 정보 확인 가능 41,938건(전체의 29.1%)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3.5%), 서울(14.5%), 부산·인천(각 6.6%), 울산(5.2%)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02,234건(전체의 82.5%)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8.6%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7.1%, 공공기관 3.9%, 시도교육청 0.3% 등의 순

4 민원 사례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는데, 꼭 과태료 처분해주십시오. ('22.6월, 경찰청)
- 버스들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니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22.6월, 부산광역시)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 초등학생 자녀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시행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경찰청)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차선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하는데, 이때 그 뒤의 직진 차량은 대기하며 기다리다가 운전자 전방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에 2차선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22.6월, 경찰청)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고, 보행자도 해당 차량을 피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남 김해시)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

- 우회전 시, 교차로 직전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에 따라 여러 상황이 생기는데, 상황별로 일시정지 후 가야 하는지 또는 그냥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2.6월, 경찰청)

ACRC NEWS

202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와 정책 이야기

15,000여 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2022.5.19. 본격 시행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5.19.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 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에 배우 이상엽 위촉

KBS2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주연배우 이상엽 씨가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로 위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엽 씨의 착하고 반듯한 이미지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엽 씨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홍보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200만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청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노력과 활동을 알리는 데 배우 이상엽 씨가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등 기관별 시정 요청사항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자체 징계 요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민원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옴부즈만과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충청권 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 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제도 길잡이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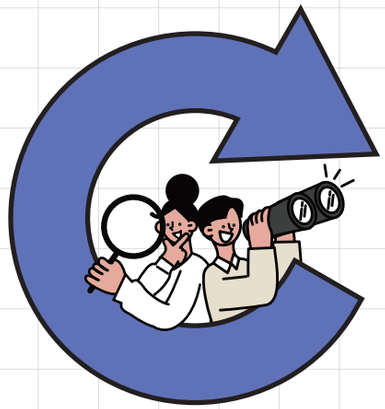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가 발간됐다. 이 책에는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책자 발간이 행정심판 업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행정심판 제도이해와 국민권익구제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계속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 첫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단체,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첫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지난 6월 16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용 K-CP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또 EU 등의 ESG 공시기준 강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의 국제 동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기업용 K-CP 개발을 추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① 저희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②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요강 내용을 개선해주세요!



새로고침

국민의 목소리 권익의 길이 되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답하기 위한 다양한 고충민원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부당한 처우의 새로고침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문제 해소

저희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거제도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선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먼저 완료되어야 했지만, 국유지 관리청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배관설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불편 해결을 위해 거제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저희 거제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유지라는 이유로 평생 도시가스 없이 살아가야 하나요? 저희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법의 취지 제시,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국유지 관리 기관의 입장이어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거부했다.
즉 관할 지자체인 거제도에서 해당 국유지를 매수한 뒤 행정재산으로 바꿔
도시가스 시설 설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재산이더라도 도시가스 사업법의 취지상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국유지 대부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협의를 지속했다.
해당기관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국유지를 도시가스 설치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됐다.
이로써 거제도 100여가구 주민들도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유재산

행정재산

[공용]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등

[공공용]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등

[기업용]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법령이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하는 재산 ex)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 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시사점

해당 민원은 국유지 관리청 업무에 명쾌한 선례가 된 사례로 향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②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 개선 요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요강 내용을 개선해주세요!

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 모집요강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됐다.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정보(부모의 직업)가 포함된 것과, 다소 높게 적용된 신체검사(시력)의 기준에 대한 부당함 때문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공군사관학교의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지원동기서에 구체적(부모의 직업) 정보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군사관학교는 모집요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신체검사(시력) 기준이 높게 적용되어 선발시험 응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원해결,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 확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부당함을 느낀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공군사관학교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한 '2022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지원자의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정보(부모의 직업)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체검사(시력)의 기준이 높게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과, 시력기준(나안 0.5이상, 교정 1.0이상)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체검사(시력)기준이 높게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시사점

지원자의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업 등)를 암시하는 내용 등 공군사관학교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집요강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눈먼 나랏돈은 없습니다!
허위 서류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내다

공정과 청렴의 덕목은 사회 전반의 합의와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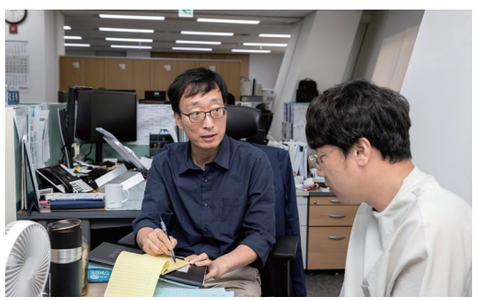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4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합동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 관련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2015년 1월에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로 국가 신뢰를 높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연결된다. 각종 부패행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적격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역시 이곳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각종 정부보조금은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이를 악용하는 일도 종종 생겨난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지급이 되었으나, 이는 명백히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례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하며, 신고처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을 빛내는 사람들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로
신고자 불이익 방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영유아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비롯해 연구개발 및 기타 보조금·지원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은 물론 14개 정부부처 및 보건복지·고용노동·산업자원 분야 관련 공공기관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파견 나와 합동조사를 수행한다.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고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허위 서류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서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0여 명의 조사관들은 365일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며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다양한 업무 배경을 지닌 조사관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때는 의욕과 보람이 함께 전해온다. 앞으로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공공재정의 누수와 국가예산 손실을 방지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가고자 한다.

복지·보조금 부정신소센터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의 신고자와 참고인을 만나
진술과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MINI Interview

강태민 주무관

2019년 5월에 입직해 이제까지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지난해 접수율이 높았던 5개 분야를 선정해 신고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등을 여러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수급 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지켜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장성룡 조사관

2021년 1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곳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부정부패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손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국민의견 조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생활이 개선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 목소리를 녹여낸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소개한다.

추진배경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비위 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기업의 책임성 강화,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됐다.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과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간 : 2021. 04. 12. ~ 2021. 04. 26. / 응답자 : 2,894명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필요성

필요하다 **93.1%**

실습 참여 전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대략적 정보나 거의 안내받지 못함 **50.6%**

실습 전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및 후기 **44.6%**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36.5%**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실습기업 견학·탐방 기회 **30.8%**

실습기업과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28.7%**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

- 현장실습 전·중·후 교사, 노무사 등과의 수시 상담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와 이용절차에 대한 사전안내·교육 강화
- 실습기업 발굴은 고용노동부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주도해 나가야 함 등

주요 개선내용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권 보장

학교별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을 추가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아래에 두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적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생, 학부모에게 '이전 실습생 만족도 결과'와 '기업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적용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유해기업 정보, 체불기업 명단 등을 직업계고 누리집 '하이파이브'에 연계 제공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현장실습 중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적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체 현장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신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영상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또 실습 개시 전 기업에 실습생 보호·안전관리 등 맞춤형 교육과 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적용 : 「기업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군 공무수행 중,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4]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군 공무수행 중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이 거부된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를 소개한다.

청렴과 결백의 전이

인간이 내재한 욕망은 강력하다. 사소한 청렴 하나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청렴이 둘이 되고, 무리를 형성하면 이는 곧 사회의 새 물결이 된다. 부패와 부정에 흔들리는 오늘날, 푸르고 올곧은 사회를, 기분 좋은 전이(轉移)를 소망한다.

WRITE
김화순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필 분야 최우수상

옷 속에 들었던 돈 10만 원은 아무도 모르는 돈이다.
그 돈이면 박스 줍는 것보다 몇 배는 남는 장사이다.
그런데도 청렴과 결백으로 양심껏 살고 있으니
내가 그분을 보고 배운 것이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 좁은 골목에서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와 내 자동차가 교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자동차와 손수레가 바짝 붙다 보니 내 차가 손수레를 슬쩍 밀치고 말았다. 그러자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가 기우뚱하더니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께 다가가 다치지 않았냐고 물으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있었다.
"내가 더 바깥쪽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리어카가 자동차 옆으로 다가가서 그랬나 봐요. 자동차는 상하지 않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혀 할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뭇사람들에 치이다 보니 잘잘못을 떠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듯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노려 목부터 잡으며 엄살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또 내일이면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자동차를 골목에 주차하고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고 댁까지 함께 갔다. 할아버지는 흔히 벌집이라고 불리는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이었다. 방 한 칸에 조그만 부엌이 한 개였다. 라면만 먹고 살았는지 부뚜막에는 찢어진 라면 봉지가 널려있었다. 냉장고가 있어 열어봤더니 달랑 고추장이 담긴 통 하나만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냉장고에 넣을 것도 없고 전기세가 아까워 코드를 빼놨다며 멋쩍어했다. 매스컴에서 150만의 독거노인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니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들를 테니 아픈 곳이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당부에 할아버지께서는 올 것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쌀과 김치를 챙겼다. 그리고 남편이 입던 옷 중 유행이 지난 깨끗한 옷을 보자기에 쌌다. 오늘 만난 할아버지의 부엌 모습이 떠올랐고 입은 옷이 남루했기 때문이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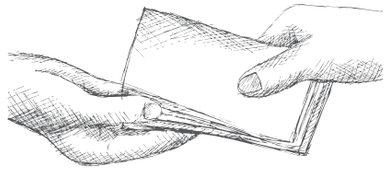
그런 원인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고 낭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던가? 그런데 박스를 주우며 벌집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꼼수를 쓰지 않았다. 일하기도 어렵고 돈벌이도 쉽지 않은데 사고를 핑계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편히 지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치지 않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양심을 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정과의 결탁을 과감히 뿌리친 것이다.

이튿날 나는 쌀 한 포대와 김치와 옷가지를 챙겨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더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 그래도 나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 물었다.
"몸은 괜찮으니 이젠 올 것 없어요."
그만 오라고 손사래 치는 할아버지께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내놓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지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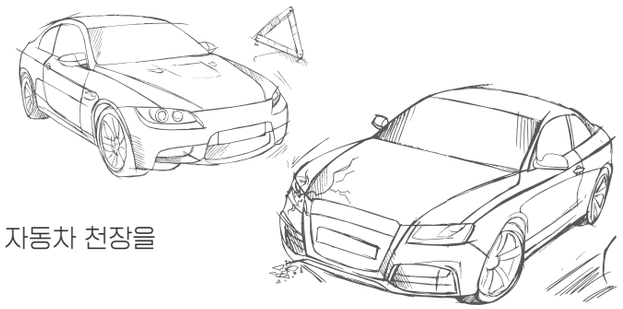
며칠 후, 나는 김치를 담가 꾸린 후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부뚜막에 널려있던 라면 봉지가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흔히 우리는 라면을 끓이면 김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찬도 없이 라면만 드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별일 없으셨죠?"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내게 내미셨다.
"얼마 전 아주머니께서 가져다준 옷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마 남편께서 몰래 비상금으로 감춰두었던 돈이었는데 찾지 못했나 봐요."

순간 그분이 내민 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렇다고 청렴과 결백의 돈 10만 원을 할아버지께 그냥 쓰시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그분의 진실에 먹칠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양심의 돈 10만 원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속옷을 샀다. 이 세상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물려줘도, 속옷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속옷을 사들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자니 왠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거 사장님 돈을 횡령한 죄로 우리 둘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속옷을 받아든 할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맺은 인연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청렴과 결백에 이어 정직까지 배우고 있다.

"올 생신 때는 저희들이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딸과 사위가 내 생일을 챙긴다며 우리 집 앞에 자동차를 대기시켰다. 나와 애들은 자동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붕 떠 자동차 천장을 들이받았다.
"어이구."
자동차가 멈췄고 우리는 문을 열고 나왔다. 상황을 보니 자동차 4대가 연쇄 추돌을 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손으로 고개를 받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 역시 고개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했으나 손으로 머리를 고일 정도는 아니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운전자들끼리 옥신각신했으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회사가 출동해 쌍방과실로 해결 되었으나 아픈 사람이 문제였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회사로 연락을 주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다. 점심을 먹고 집에 도착한 사위는 내 걱정을 했다.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시죠. 그래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위의 말에 내가 한마디를 했다.
"별로 다친 곳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라고? 이 사람아,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해."
나의 단호한 어조에 사위는 멈칫했다.
"이번 사고로 자네 부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간섭을 안 하겠지만, 나는 별로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끌내겠네."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보니 몸 어느 곳에도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상 없음을 통보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어르신이군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때로는 칭찬을 듣는 때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구태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사고 났으면 입원을 해야 한다는 등식이 내재해 있다. 그다음 순서는 밀고 당기며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 합의에는 돈이 매개체로 등장하니 우리 사회의 부조리 중 하나이다.
나는 박스를 주워 근근이 살아가는 어른한테 사회 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과 결백을 배웠다.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돈을 뜯어내면 몇 년 고물을 줍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옷 속에 들었던 돈 10만 원은 아무도 모르는 돈이다. 그 돈이면 박스 줍는 것보다 몇 배는 남는 장사이다. 그런데도 청렴과 결백으로 양심껏 살고 있으니 내가 그분을 보고 배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청렴과 결백이 곳곳의 사람들에 전이되어 사회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항구 도시 동해로 떠나는 아날로그 여행

문득 바다가 그리워 묵호행 KTX를 탄다. 언제나 동해 여행의 시작은 묵호등대마을이다. 묵호역에서 묵호등대마을로 걸어가다, 묵호항 근처 물회 식당에 들른다. 새콤한 살얼음 육수에 꼬들꼬들한 회를 말아 삼키며 항구의 맛을 음미한다. 차로 10분만 달리면 바다, 산 어디든 닿는다는 동해시. 묵호등대에 오르고, 추암해변을 감상하고, 무릉계곡을 거닐며 무더위를 잊는다.

글·사진 김혜영 여행작가

두번째 나들이

바다를 **걷다**
바다에 **닿다**
바다를 **담다**

묵호등대마을에서 만난 묵호의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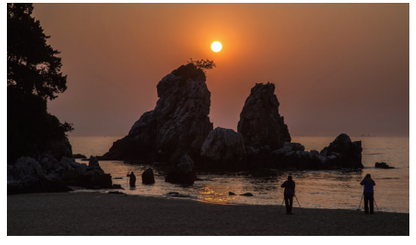
묵호등대 아랫마을이어서 묵호등대마을이라 불린다. 1970년대 이전 묵호항이 무연탄과 석탄, 수산물을 출하하는 항구로 전성기를 누릴 때, 전국에서 몰려든 인부들이 묵호등대 아래 산비탈에 슬레이트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이 마을의 시초이다. 당시 항구 근처에는 뱃사람들이, 윗마을에는 명태 덕장 인부들이 살았다. 덕장 인부들은 묵호항에 들어온 명태를 지게에 매고 산꼭대기 덕장으로 날랐다. 묵호 덕장에서 말린 명태는 '묵호태'라는 이름으로 동해시 특산품이 됐다. 마을 골목길은 여전히 비좁고 가파르다. 바닥이 굴 껍데기처럼 거칠다. 두 걸음 정도 되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지붕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다. 마을 담벼락은 묵호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화첩이다. 고된 뱃일을 마친 일꾼들이 막걸리와 노가리 안주로 피로를 풀었던 논골주막, 코흘리개 아이들의 참새방앗간이었던 구멍가게, 동해 특산물인 문어를 손질하는 할머니들, 명태가 그득 담긴 지게를 지고 가는 할아버지 그림에서 묵호의 청춘을 만난다.

벽화를 구경하며 묵호등대 아래 '바람의 언덕'에 오른다. 묵호항과 묵호등대마을 전경이 가슴 벅차게 달려온다. 다랑논 같은 산비탈에 빨강, 파랑, 노랑 양철지붕들이 알록달록하게 수놓았다. 바람의 언덕은 일출과 일몰 명당이다. 해 질 녘 주홍빛 노을을 감상하며 일 년 뒤 나에게 배달될 '느린 엽서'를 써 우체통에 넣는다.

2021년에는 묵호등대 옆 해안 절벽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개장했다. 도째비는 도깨비를 일컫는 이곳 사투리. 해발 59m, 160m 길이의 전망대와 87m 길이의 미끄럼틀, 공중에 걸어놓은 케이블선 위를 달리는 하늘자전거 등의 체험 시설이 들어섰다.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지만, 조명을 켜놓아 그 자체로 볼거리다.

출렁다리에서 감상하는 능파대 절경

동해안에서는 바다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추암해변은 조금 다르다.
해변 북쪽 끝 바위 언덕을 넘어가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암절벽이 나타난다.
칼바위, 촛대바위 등으로 불리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다.
추암해변 지명이 '송곳 추(錐)',
'바위 암(巖)'자를 쓰는 이유이다.
바위 중에서도 유독 뾰족한 촛대바위가 TV 애국가
첫 소절의 해돋이 장면으로 등장해 유명해졌다.
촛대바위 주변에 늘어선 바위 군락은 형제바위,
양머리바위, 잠자는 거인바위 등이 한데 모여
바위 숲을 이뤘다. 보기 드문 기이한 풍경이다.
조선 시대 사람 한명회도
경치에 반해 '능파대(凌波臺)'라 이름 붙였다.
이곳 절경이 미인의 걸음걸이와 같이
아름다웠다나. 능파대 왼쪽, 해안절벽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에 올라서니,
발아래 투명한 청록빛 바다가 일렁인다.
조금 힘차게 걷자, 다리가 출렁
출렁한다. 심장도 덩달아 출렁댄다.
난간을 붙잡고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선다. 능파대와 촛대바위,
멀리 삼척 쏠비치가 한눈에 보인다.
이곳이 추암해변 뷰포인트였다.



신선들 노닐던 무릉계곡 산책

두타산과 청옥산 골짜기 물이
무릉계곡 초입의 무릉반석 위를 힘차게
흘러내린다. 이 무릉반석은 하나의
흰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적이 무려 약 4,958㎡(1,500여 평)에
달한다. 이곳을 찾았던 수많은 시인 묵객이
빼곡하게 새긴 기념 각명도 진풍경이다.
반석을 지나 삼화사를 지나면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된다. 매표소에서부터 쌍폭폭를
지나 용추폭포까지, 편도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가벼운 산책 코스다.

숲이 어찌나 울창한지 한낮에도 어둑하다.
내내 '쏴쏴' 우레 같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기암괴석들을 만나기도
한다. 병풍을 접어놓은 듯한 병풍바위는
주상절리를 닮았다. 병풍바위 옆에는
용맹스런 장군의 얼굴을 한 장군바위가
나란히 서 있다. 두 바위를 지나자 금세
쌍폭포에 닿는다.
쌍폭포는 좌우 두 개의 폭포가 하나의
소로 떨어진다. 바위를 뚫을 듯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슴이 탁 트인다. 쌍폭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용추폭포가 기다린다.
용추폭포 아래 반석에 앉아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발을 식힌다.
이 순간 무릉도원이 여긴가 싶다.

#첫 번째 상품 **UPGRADE!**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공재정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정 이익을 환수해가는 법률입니다. 기존의 공공재정환수법의 규정 및 실효성이 미약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규정으로 국민의 '공공재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은품도 드려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환수법은 신분 및 신변 보호를 통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자에겐 환수되는 재정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최대 30억 원)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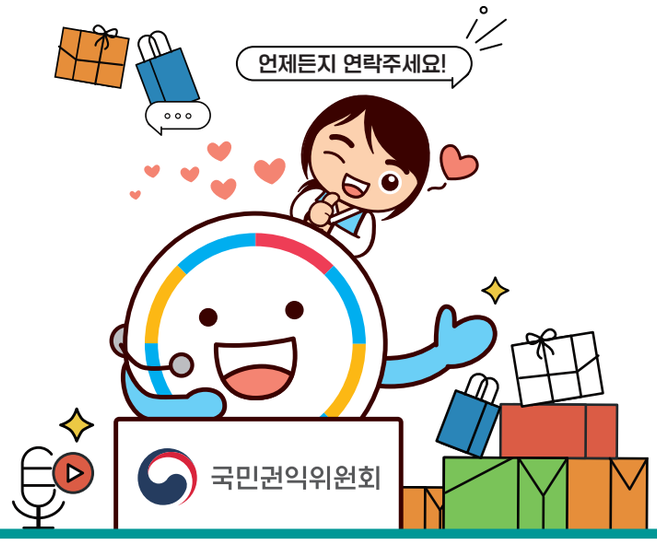
관련영상보기

LIVE

지구 최강 정책을 판매합니다

국민권익 다함께 누리쇼 4

국민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드리는
국민을 위한 지구 최강
정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상품

집단 민원 조정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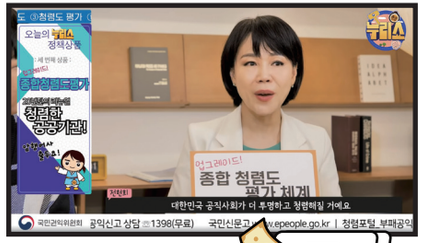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과 국민의 중재자가 되어 사실관계 현장조사, 민원인 조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시행하여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합의점이 도출된 이후에도 이행 점검을 시행하여 꼼꼼한 A/S를 진행 중입니다.

- 발 빠른 행정 감사합니다!
-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아요!
- 고민 해결!!

#세 번째 상품 **UPGRADE!**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20여 년 전부터 시행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올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주관적인 '청렴도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합해 하나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드라마

#부정부패_척결
#청렴한_세상

권선징악이 확실한 드라마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특히 부조리와 불합리가 만연한 사회에 맞서 한 방을 날리는 주인공을 보고 있자면 속이 후련해진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만들어가는 청렴한 세상을 감상해보자.

어게인 마이 라이프 편성 SBS

출연 이준기, 이경영, 정상훈 등
장르 법정, 회귀, 현대 판타지
줄거리 법 위에 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절대 권력자 조태섭(이경영)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의문의 킬러에게 죽임을 당한 검사 김희우(이준기). 그가 15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다. 미래를 바꾸고 조태섭에게 복수하기 위해 싸움, 공부, 지략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절대 권력을 쓰러뜨리고자 한다.

Point 죽었다 다시 살아난 열혈 검사의 절대 악 응징기

김과장 편성 KBS2

출연 남궁민, 남상미, 이준호 등
장르 오피스 코미디
줄거리 조폭들의 이중장부를 만들어주던 김성룡(남궁민)은 더 큰 한탕을 위해 TQ그룹 경리과장으로 입사한다. 그는 회계장부를 보다가 TQ그룹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손을 떼려 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의인으로 불린다. 그리고 그가 진짜 정의의 화신으로 거듭나면서 부정부패와 싸우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Point 직설과 은유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풍자하는 그의 발언

비밀의 숲 2 편성 tvN

출연 조승우, 배두나, 최무성 등
장르 범죄, 스릴러
줄거리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얼굴의 표정을 포함한 감정이 결여된 검사 황시목(조승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동파 형사 한여진(배두나)가 다시 만났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팽팽한 갈등 속에서 대립점에 선 두 사람은 은폐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한다.

Point 작은 비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부패의 습성

군검사 도베르만 편성 tvN

출연 안보현, 조보아, 오연수 등
장르 군대, 법정, 블랙 코미디
줄거리 5년간 군검사를 하면 대형 로펌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제안에 도배만(안보현)은 어쩔 수 없이 군대로 들어간다. 제대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의 앞에 군법을 수호하는 신인 군검사 차우인(조보아)이 나타난다. 알고 보니 차우인이 군대에 온 진짜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고, 그 길에 도배만이 합류하면서 군대 내 검고 썩은 악을 타파한다.

Point 계급이 존재하는 군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가능할까?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주인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현 시대에는 이것의 획득 여부에 따라 권력이 부여되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게 문이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거나 옆 동네까지 돌아다니기도 한다. 구하기 힘든 상품을 손에 넣는 힘, '득템력'에 대해 소개한다.

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좋아!**

참고서적 트렌드코리아 2022

희소한 상품을 얻는 '득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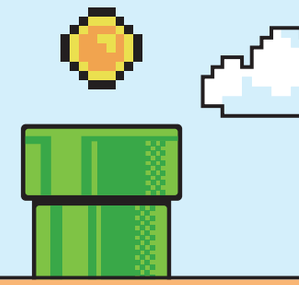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집필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올해 주목할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득템력'을 꼽았다.
게임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 득템은 얻을 득(得)과 아이템(item)의 템이 합쳐진 단어로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었을 때 표현한다. 이 단어가 소비에 접목되어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제품을 쟁취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뜻하는 득템력이 되었다. 득템력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시장에서 정보, 시간, 정성, 인맥, 운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희소한 상품을 획득하는 능력이다.
대표적으로는 스타벅스 굿즈, 나이키 리미티드 운동화,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 등 한정판·콜라보를 붙이고 출시되는 제품들이 있다.

레어·한정에 열광하는 이유

한정판과 레어템에 열광하고, 이를 얻기 위한 능력이 중요해진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과시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교가 일상화되는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값비싼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소비와 관련된 더 특별한 능력의 과시가 필요해졌다.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한 게 득템이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갖기 어려운 상품을 누가 먼저 얻는지가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런 과정을 즐긴다. 특히 MZ세대의 소비에서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MZ세대는 단순히 소비가 아닌 재미와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득템한 상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리셀'은 투자 수단이 되었다.

득템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득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인내심이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의 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마다치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없는 운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추첨인 래플, 럭키 드로우 등 한정된 제품에 대한 구매 자격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여하는 판매 방식이 있다. 돈이 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품을 살 수 없는 구조다. 이를 잘 활용하는 건 나이키로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한 운동화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추첨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을 증명한다. 나이키는 래플에 드레스 코드를 도입했으며, 스타벅스는 프리퀀시를 일정 수량 모아야 굿즈를 얻을 수 있다. 치열한 득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상품을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며 브랜드의 요구 조건에 수용해야 한다.



여름 DOWN 절약 생활

전기요금과 더위를 모두 내리는 방법

한여름, 실내 공기가 시원하고 쾌적해질수록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진다. 우리는 영영,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서 벗어날 순 없는 걸까? 그래서 준비했다.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다운(DOWN) 여름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 누진제

1974년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진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요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의 상승도 가파르다. 2019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책정 기준이 개편됐지만, 여전히 높은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는 이것

ON

에어컨 켜기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적정 실내온도(26°C)를 유지하며 짧은 외출(2~3시간)일 경우 계속 틀어놓는 것이 좋다. 에어컨 온도를 1°C 높이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OFF

햇빛 차단하기

에어컨 작동 시 창문을 닫아도 햇빛을 가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들어온 열기로 인해 실내온도가 높아진다. 햇빛을 가리면 냉방 효율이 15% 이상 높아진다. 따라서 에어컨을 틀 때는 커튼, 블라인드 등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TOGETHER

에어컨, 선풍기 동시에 틀기

에어컨 작동 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선풍기가 차가워진 공기를 방 전체로 순환시켜 약 2배 정도 더 빠르게 찬 공기가 퍼져나간다. 이때 선풍기는 에어컨과 바람의 방향이 같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CLEAN

필터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가득할 경우 3~5%가량 전기를 더 소비한다. 필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면 냉방 효율이 약 58%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약 27% 절감 된다. 따라서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권익 갈무리

vol
73

다시 읽는 권익

제도의 틈을 메우다

대한민국 민원지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완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 불편과 사회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p 4-5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정과 청렴을 갖춘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p 8-1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5대 중점분야(복지분야, 고용·노동분야, 산업분야, 농림·수산분야, 민간분야)에서 발생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p 14-17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호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p 36-37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발간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판례와 재결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새롭게 발간된 책자다.

p 26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공재정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정 이익을 환수해가는 법률이다. 보다 촘촘하고 강력해진 규정으로 국민의 '공공재정'을 지키고 있다.

p 50-5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7.1(금)~9.13(화)
영상, 노래
8.1(월)~10.4(화)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분야
① 시나리오 ② 시
③ 웹툰/포스터/일러스트 ④ 영상 ⑤ 노래

공모주제
① 내가 바라는 청렴·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② 국민이 직장,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한 양심, 정직, 공정 등의 청렴 가치와 관련된 경험
③ 부정부패·부조리, 권한의 과도한 행사, 불편부당 등과 같은 청렴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한 사례
④ 행정의 투명성 및 공개의 가치 실현,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준 청렴한 공직자, 또는 공직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국민의 사연

시상 내역
총 상금 4,980만원(50편 시상)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www.integritycontents.kr

문의사항 02-334-9044

풀 칠 하 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요금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 3. 22 ~ 9999. 12. 31

세종 우체국
제40060호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국민권익
2022 SUMMER VOL.73

SUMMER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3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22년 여름호

권익위 열독왕_QUIZ 정답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또는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국민권익소식지